

한국출판연구소, 《한국 출판산업 실태조사》 발간

출판산업 구조의 영세성 드러나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가 《한국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펴냈다. 이번 실태조사서는 1999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출판사(819곳), 도매 출판업체(109곳), 서점(500곳)을 대상으로 조직 및 재정 현황, 발행·판매·영업 실태 등 출판산업지표가 되는 항목들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출판사들의 평균 직원수는 7.8명으로 직원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1인 출판사' (6.8%)를 포함해 직원수가 5명 이하인 출판사가 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수준은 대졸 초임이 연 980만원이고, 경력 10~14년의 부장급이 돼야 2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퇴직자를 기준으로 한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한은 남성이 4.5년, 여성이 3.3년이었다. 연구소측은 이처럼 출판사의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것은 출판사의 영세성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출판사들의 1998년 1년 평균 매출액은 4억9천여만원인데, 이 가운데 1억원 미만도 35.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판분야별 평균매출액은 잡지(9.4억원)와 아동도서(8.4억원)가 일반단행본(3.8억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10.4~14.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판사들이 1998년에 발행한 평균출판종수는 22종으로, 1개월에 1~2종의 도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년 평균출판종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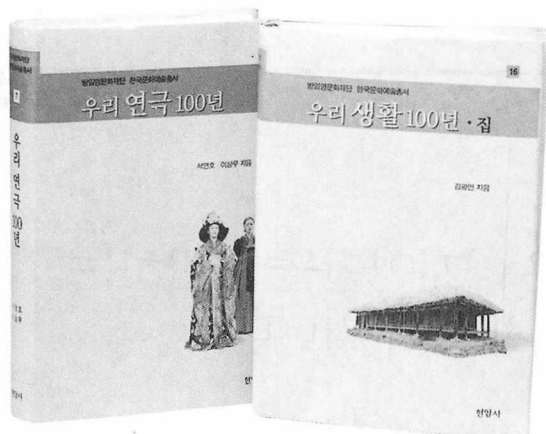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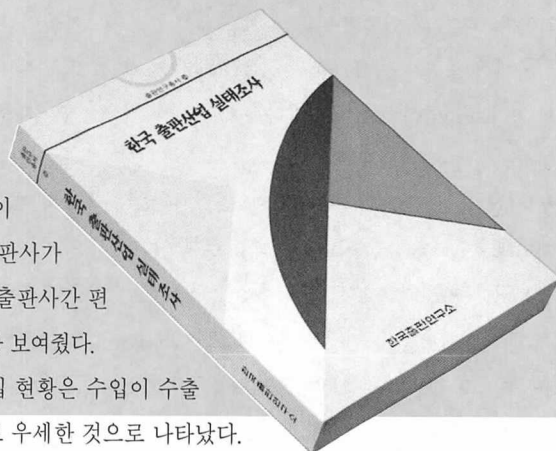
20종인데, 50종 이상 발행하는 출판사가 9.1%를 차지해 출판사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도서의 수출입 현황은 수입이 수출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도서의 국내 번역출판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58.7%로, 해당 출판사의 번역출판 종수는 평균 37.6종이었다. 반면 외국에 저작권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출판사는 9.5%고, 평균 종수는 4종이었다.

또한 출판사들의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비율(17.3%)이 낮고, 홈페이지를 갖춘 경우에도 자사도서 검색, 고객의견 수렴, 온라인 주문판매 등에 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를 진행한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영세한 출판업체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출판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개별 업체들의 전문성 강화 노력과 함께, 출판계 공동의 노력, 정부의 법적·제도적·경제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은 기자



《한국문화예술총서》 1차분으로 《우리 연극 100년》(서연호 외)과 《우리 생활 100년 · 집》(김광연)이 현암사에서 나왔다. 방일영문화재단이 기획한 《한국문화예술총서》는 20세기를 마감하며 지난 100년간의 우리 문화와 예술을 정리하는 시리즈로, 사상·문학·미술·국악·양악·무용·연극·영화·건축·신문·방송·출판·과학·생활(옷·집·음식)의 16개 분야에 걸쳐 근·현대 한국문화를 정리한다.

《한국문화예술총서》 1차분 나와

지난 백년간 근·현대 한국 문화 분야별로 정리해

《우리 연극 100년》은 20세기 한국 연극의 흐름을 미학적·양식적 발전 양상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크게 근대 연극사와 현대 연극사로 나뉘며, 전반부는 근대극의 성립부터 구파극과 신파극의 수용, 신극 운동, 사실주의극까지 서구 사실주의극의 수용과 정착 과정을 살폈다. 후반부는 근대 사실주의극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양식을 실험한 1960년대 연극을 거쳐 마당극·음악극·여성연극·놀이극 등 다양한 연극의 발전 과정을 정리했다.

우리 주거 생활의 변천사를 다룬 《우리 생활 100년 · 집》은 전통적인 집구조가 서양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모습, 터주·삼신 등 전통적인 집 지킴이 이야기, 풍수지리가 집에 미친 영향, 나무장수·물장수 등 현재 사라져가는 직업 이야기를 담았다. - 김정은 기자